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이와 잣대



지나고 보니, 내 한 살 때는  
1센티를 자를 갖고 있었던 같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딱 1센티 자였습니다.

열 살 때는 10센티 자를 가지고 놀았던 같습니다.  
놀고, 따라하고, 싸우고...

스무 살 때는 20센티 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뼘 정도로 넓어진 것 같지만 이해하기는  
불평불만 내 주장이 훨씬 더 강했었지요.

차츰 자라 마흔이 되었을 때는  
확실히 스무 살 때보다 배정도는 넓어진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짧고 좁고 알습니다.  
웬만한 것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순 살이 되면 60센티가 아니라  
6미터짜리 자를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흔에는 7미터가 아니라  
700미터자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펼쳤다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오는 자,  
어떤 것이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어떤 깊이도 높이도 잴 수 있는 자처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내 위한 닭살 멘트▶

당신이 태어난 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렸을꺼야.  
하나님은 천사인 당신을 보낼 때  
무척 슬펐을테니까..

◀남편 위한 닭살 멘트▶

세상엔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어요.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이럽우유”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내는 기도생활(마태 7:8)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7권 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월 1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2006년』 신앙목표』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내는 기도생활” (마태 7:8)



『표어』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십니다

『실천방안』

- 하루에 7분 기도하기
- \* 매일 가족 위해: 5분 기도
  - \* 매일 교회 위해: 1분 기도
  - \* 매일 나를 위해: 1분 기도

그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누구나 가난한 시절이라 아파도 병원보다 먼저 기도로 고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놀러 갈 여유가 없던 그 시절인지라 주일이면 교회에서 보내는 낙은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여유로워져 아프면 병원이 먼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천에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가 필요없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이란 신앙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문명이 화려할수록 부딪쳐 주저 않고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따라 행하기▶

죄 없는 그리스도도  
기도를 하는데  
죄인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인품따라 행하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응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4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7 (신년주일)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48장	
기 도 Pray		정덕수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7:7-8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내는 기도생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87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1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 내
25	장현중	양경배		
1	정덕수	오지영		<본당>노은숙 지찬영 <입구>장현중 김종건
8	정희자	윤경례		
15	지찬영	윤영진		
22	최재학	윤주야		
29	현석호	이근평		

### ◆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5	성탄주일	송구영신예배(31):11:00
1	신년주일	신년축복새벽기도회주간
8		
22		수요예배개강(25)
29	이삭줍기봉헌	

2006년 교회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금년 교회생활목표는 "기도"입니다(마7:8)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게 임하는 축복이 나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년축복새벽기도회 <일시> 2일(월) - 6일(금) 새벽 5:55분. 교회  
\*한 해 동안 내 가족과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냥 되는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과 일들의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2006년을 시작합니다.  
\*5일동안 중 하루는 택일하여 의무로 참석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4일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데 참석을 작심한 날보다 나머지 날이 더 눈이 일찍 떠질 것 같지 않나요? 마치 학교 안 가는 날 일찍 눈떠지던 것처럼....
- 2006년 봉사하실 교우께 감사드립니다(2006년 봉사 참고)  
\*아직도 여러부분에서 봉사하실 교우의 자원함을 기다립니다
- 오늘은 「 Free 」 : 청년부 "인도 단기선교활동자금을 위한 음식판매"  
\*오늘은 그동안 도와 주심에 감사하여 "무료"로 드립니다. 적은 양의 비범밥이지만 청년들의 정성을 보아 기쁨으로 잡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열정뿐 아니라 웃어른께 대한 감사의 예의 또한 갖고 있음에 더 예배 보입니다.
- 수요예배는 18일(셋째주 수요일)까지 이웃교회 참석 주간입니다

### ◀착한 시인▶ 여우 같다 안정옥

많은 옷 중에서 내가 즐겨 입는 옷은 두어 벌 두어 벌을 위해 옷들이 장롱 속에 걸려 있다 식탁에 차려지는 그릇은 몇 개, 그 몇 개를 위해 한쪽에 쓰지 않는 그릇들이 포개져 있다 자주 꺼내 보는 책 몇 권, 그 몇 권을 위해 수백 권의 책이 너무 오래 먼지를 뒤집어썼다 몇 사람과 만날 뿐, 그 몇 사람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벌 때처럼 뒹뒹거려야 했다 두어 벌 옷 때문에 세상의 장롱 속이 꼭 찼다 몇 개의 그릇, 몇 사람 때문에 세상은 포화다 눈물겨운 욕망들, 끝없는 집착, 더, 더, 보다 더 나은, 이 혼자 나이를 먹어 늙어터졌다

버릴 것 버리고 담아가려고 쏟아 놓은 신발들, 이놈은 아직 신을 만해서, 저 놈도 언젠가 신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검정 비닐에 담다보니 다시 한 자루 그대로 안고 이사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신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인데도 또 그렇게 안고 왔습니다. 언제나 되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무소유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신발꾸러미였습니다.